



英國 特許廳도 獨立採算制를

制度 案 발표...特許訴訟手續의 簡素化·

英國 政府는 「知的財産과 革新」이라는 知的所有權制度의 改革에 관한 새로운 政策 (White Paper)을 발표했다. 이 政策은 우리나라가 채택할 예정으로 있는 獨立채산제와 비슷한 特許廳을 獨立·法人化하는 獨立採算制를 導入할 방침이다. 또 이 政策에는 小發明制度를 創設하며, 特許訴訟의 手續을 簡素化·迅速化하도록 하고 있다.

<編輯者 註>

基本政策

이 新政策은 第1부에 工業所有權과 技術革新을, 제2부에 著作權과 연주자의 保護로써 구성되었으며, 각 과제별로 모두 19章으로 되어있다.

그 내용은 小發明에 대한 保護制度의 創設·特許廳의 獨立法人化·訴訟手續의 簡素化·磁氣테이프에 대한 著作權料 부과등 知的所有權制度를 대폭 改正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新政策의 배경에는 知的所有權制度를 技術의 진보와 商業活動의 변화에 대응하게 하고 英國의 經濟強化의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政策이 추구하는 세가지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기술발전에 대처하기 위해 위성방송·컴퓨터·소프트웨어·전자데이터의 축적등에 관한 著作權으로 保護한다.

둘째, 創作者와 利用者의 적절한 이익을 위한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小發明制度를 創設하며,

가정 등에서의 音樂등 著作物의 녹음에대한 著作權者 保護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

셋째, 知的所有權 실시에 따른 장애를 제거기 위해 特許訴訟의 簡素化와 權利부여 手續의 簡素化및 저렴화를 도모하도록 되어있다.

特許廳의 獨立法人化

特許廳의 人的資源(審査官의 技術적전문지식)과 情報源을 工業界의 여러분야에 활용케 한다.

구체적으로는 特許廳을 정부기구로부터 분리하여 獨立採算制를 導入하여 法人化한다. 特許廳의 운영은 무역·산업상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운영하게 한다.

特許廳의 임무는 현재 特許廳이 수행하고 있는 特許·商標·登錄디자인에 관한 집행업무·또 새로이 登錄한 無登錄디자인權·特許訴訟에 관한 업무를 하며, 英國이 加入한 諸국제조약의 실행을 맡는다.

또 工業所有權 制度의 보급 및 特許廳의 정보 자원, 전문가의 상업적 활용(特許廳의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審査官에게 기술의 조사·서비스 의뢰)을 하도록 하고 있다.

小發明 保護制度

特許保護의 대상이 되지 않는 기술적으로 고도화하지 않은 오리지날 물품에 대해서도 그 제

導入한다

迅速化 위해

조자에게 적당한 保護를 해 주도록 하고 있다. 또 著作權 개념으로 발전시킨 新保護制度(無登錄디자인權)를 제안하고 있다.

이 制度의 창설에 따라 물품의 기능을 保護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의 登錄디자인權(1949年法)은 대상을 美的外觀이 있는 물건에 한정하며, 權利의 존속기간도 15年에서 25年으로 연장 할 예정이다.

無登錄디자인權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적창작이 없는 물품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保護期間은 시장에 나온지부터 10年간이며, 그후 5年간에 한해 연장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

셋째, EC市場에서 최초로 출현된 물품의 디자인

인과 英國人·EC지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者 또는 英國의 디자인을 保護해 주고 있는 나라의 국민이 창작하고 있는 물품의 디자인에 한해서 保護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샤는」 무역·산업상은 「外國이 英國의 제품을 保護해 주지않는 국가의 제품을 保護대상에서 제외되며, 英國산업계는 그들의 제품을 자유로이 모방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네째, 허가없이 판매·사용·복제 또는 수입하는 것은 權利의 침해가 아니다.

訴訟의 迅速化

많은 경비와 시간이 소요되는 特許訴訟의 수속의 簡素化·迅速化를 위해 現在 裁判所가 獨占으로 맡고있는 침해 수속, 無效手續등을 特許廳에 移管한다.

그리고 特許廳長官은 현재 재판소에 부여된 禁止請求權을 포함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단, 特許廳長官에게는 그러한 명령을 강제로 할 수 있는 權限이 없기 때문에 강제권 한단은 재판소에 한해서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日, 「知的所有權 研究所」 設立

내년에 學界·産業界 專門家로 구성

日本政府는 知的所有權의 保護問題 등을 다루기 위해 「知的所有權研究所」를 내년도에 設立키로 했다.

日本通産省은 知的所有權 研究所를 設立하여 情報産業發展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知的所有權 問題·컴퓨터犯罪·프라이버시 保護問題를 다루기로 했다.

學界·産業界의 專門家들로 구성될 이 研究所는 知的所有權과 관련된 새로운 보호조약체결

및 國內外 紛爭處理 등을 위해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한편 通産省의 情報産業 관련정책을 마련하는데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日本은 情報産業이 크게 發展함에 따라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半導體 회로설계등의 保護問題를 해결하고 컴퓨터 犯罪防止를 위해 客觀的 立場에서 政策을 결정할 수 있는 체제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그 동안 指摘되어 왔다는 것이다. <㉠>